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 발간

- 71개 지표의 시계열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 삶의 질 현황 제시 -

< 국민 삶의 질 지표 상황판 ('24년 12월 기준) >

🟢 : 개선(40개), 🔴 : 악화(24개), 🟡 : 동일(7개)



주. 1) '24년 12월 말까지 공표된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임. 다만, 지표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고용률, 실업률 지표는 '25년 1월 공표된 자료를 반영하여 '24년 4분기 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2) * 표시된 지표는 2년 이상 주기 지표로 '24년에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23년 12월 기준과 동일

※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는 통계개발원 홈페이지(<http://sri.kostat.go.kr>), 개별 지표 값은 지표누리 홈페이지(<http://www.index.go.kr>)에 게시되어 있음

담당 부서	통계개발원	책임자	실 장	최바울 (042-366-7301)
	경제사회통계연구실	담당자	사무관	심수진 (042-366-7315)

□ 통계개발원에서는 국민의 삶을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연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 삶의 질 현황과 중장기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 국민 삶의 질 지표는 GDP 중심인 경제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Beyond GDP**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의 삶의 질 시계열 변화를 모니터링 하고,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작성되었다.

-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등 경제적 지표 뿐 아니라 건강, 여가, 안전 등 삶의 질과 관련된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되며,

* 기존 통계자료(행정자료 21개, 조사자료 50개)로 작성되어 지표별로 출처가 다양

- 보고서에서는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표가 전기 대비 개선 또는 악화 되었는지에 대한 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 삶의 질 변화를 보여준다.

※ 지표작성 시점('24년 12월 말)에 따른 유의사항

- '24년 12월 말까지 공표된 통계*로 작성되어, 지표별로 활용된 자료의 시점이 서로 상이함

* 71개 지표의 최근 통계연도('24년 12월 기준: '24년(19개), '23년(47개), '22년(3개), '21년(1개), '20년(1개))

□ 특히 이번 보고서의 **이슈분석***에서는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삶의 질 분석을 주제로 하여 작성하였다.

* 이슈분석은 삶의 질 관련 이슈를 선정하여 작성한 것으로 전체 원고는 보고서 127쪽에 수록

- '데이터로 본 청년의 불안과 원인 탐색: 댓글분석을 중심으로'(노범래 교수, 부경대학교)에서는 청년의 행복과 불안,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를 인터넷 상의 댓글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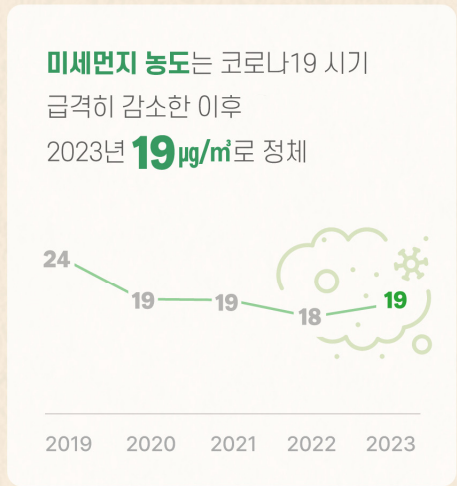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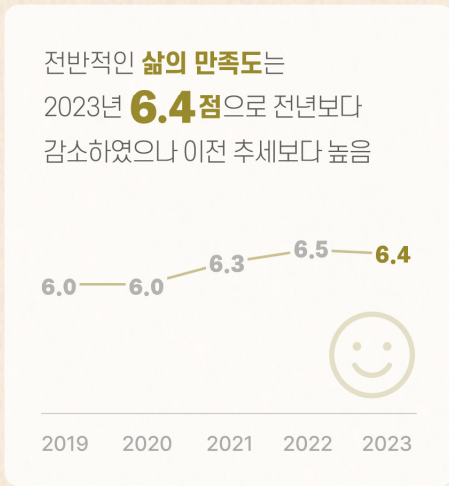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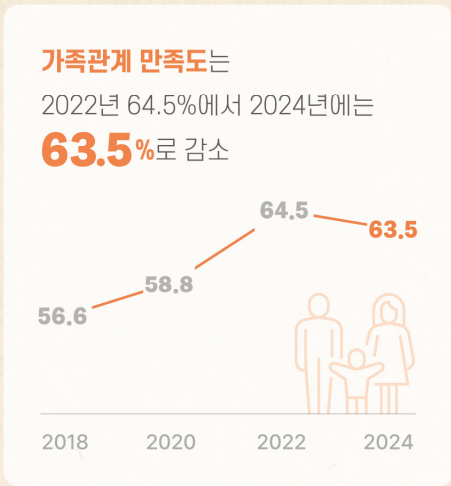
- '지난 20년간 국내 삶의 질 연구동향 분석'(우한수·심수진 사무관 통계개발원)에서는 2000년 이후 국내 삶의 질 연구에 대한 체계적 리뷰를 통해 연구주제 및 연구 대상, 활용하는 통계자료 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 김진 통계개발원장은 “영역별 삶의 질 지표의 개선 및 악화 추세를 통해 우리 사회 삶의 질 현황을 진단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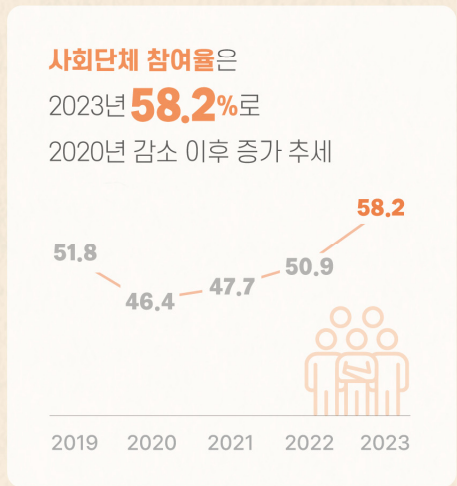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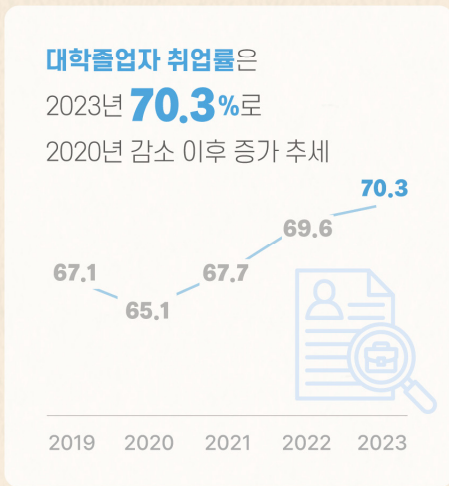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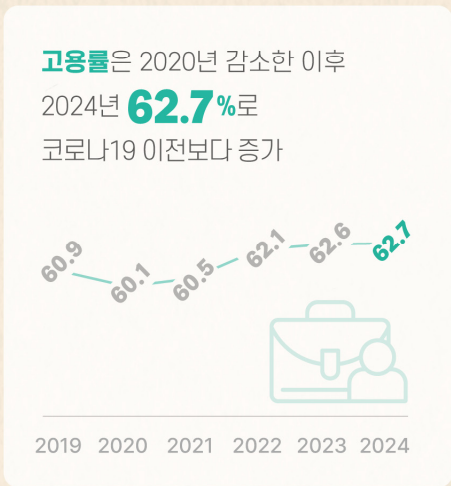
국민 삶의 질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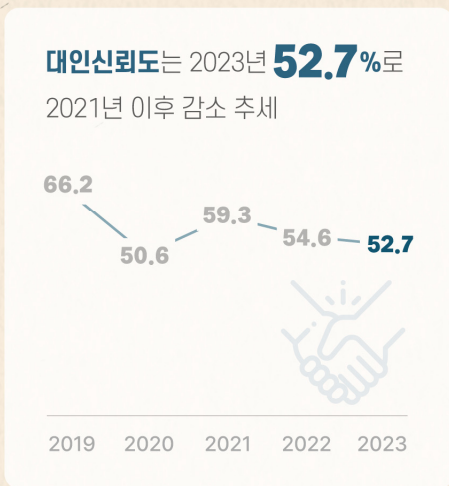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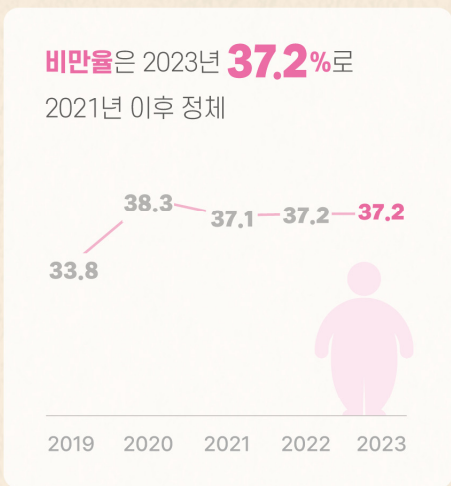
코로나19 시기 개선된 이후 정체되거나 악화된 지표



코로나19 시기 악화 이후 개선 추세를 보이는 지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지표



「국민 삶의 질 2024」 주요 결과

1. 전체 요약

업데이트 된 61개 지표 중 전기 대비 개선지표 31개, 악화지표 23개

- 11개 영역 중 소득·소비·자산, 주거, 여가 영역은 개선 지표가 많고, 시민참여, 가족·공동체, 환경, 고용·임금 영역은 악화 지표가 많음
- 전체 71개 지표 중 '24년에 업데이트 된 지표는 61개이며, 전기 대비 개선지표 31개, 악화지표 23개, 동일지표는 7개임('24년 12월 말 기준)
 - ('24년 수치 반영) 19개 지표 중 전기 대비 개선은 8개, 악화는 11개임
 - 고용률, 학교생활 만족도, 스트레스 인지율, 주관적 건강상태, 신체활동실천율, 가구순자산, 대기질/소음 만족도 지표들이 개선된 반면,
 - 실업률, 가족관계만족도, 교육비부담도, 학교교육효과, 야간보행안전도, 수질/토양환경/녹지환경 만족도, 기후변화불안도, 안전에 대한 인식 등은 악화됨
 - ('23년 수치 반영) 40개 지표 중 전기 대비 개선 23개, 악화 11개, 동일 6개임
 - 기대수명, 가구중위소득, 주택임대료비율, 아동학대피해경험률 등은 개선
 - 유아교육 취원율, 비만율, 상대적 빈곤율, 부패인식지수 등은 전년과 동일
 - 자살률, 여가시간, 미세먼지 농도, 기관 신뢰도, 대인 신뢰도 등은 악화됨

< 업데이트 된 61개 지표의 통계연도별 전기 대비 개선/악화 현황 >

통계연도 기준	계	지표의 최근 변화		
		개선	악화	동일
2024년	19 (100%)	8 (42.1%)	11 (57.9%)	
2023년	40 (100%)	23 (57.5%)	11 (27.5%)	6 (15.0%)
2022년	1 (100%)		1 (100%)	
2021년	1 (100%)			1 (100%)
전체('21~'24년)	61 (100%)	31 (50.8%)	23 (37.7%)	7 (11.5%)

주: 1) '24년 12월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지표이나 지표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25년 1월 공표된 '24년 고용률, 실업률 지표는 반영함.
2) 61개 지표 목록은 붙임1 참고

※ 지표별로 작성주기와 공표시점**이 상이하여 '24년에 업데이트된 지표는 전체 71개 지표 중 61개이며, 이 중 '24년 수치가 반영된 지표는 19개이고, 40개가 '23년 값임

* 71개 지표의 작성주기: 1년주기(45개), 2년주기(23개), 3년주기 이상(3개)

** 71개 지표의 최근 통계연도('24년 12월 기준): '24년(19개), '23년(47개), '22년(3개), '21년(1개), '20년(1개)

가족관계 만족도, 삶의 만족도, 미세먼지 농도 등은 소폭으로 악화되었으며, 고용률, 대학졸업자 취업률, 사회단체 참여율 등은 지속적인 개선 추세임

- **코로나19 시기 이후 크게 개선된 지표들이 최근 다시 소폭으로 악화되거나 정체되고 있음**
 - 가족관계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는 전기 대비 소폭 감소하여 악화로 나타났지만, 이전 수치의 증가폭에 비해 최근 감소는 미미한 수준임
 - 미세먼지 농도는 '23년 $19\mu\text{g}/\text{m}^3$, 실업률은 '24년 2.8%로 전년 대비 악화되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19년보다 개선된 수치를 보여줌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가족관계 만족도(+)	56.6%		58.8%		64.5%		63.5%
삶의 만족도(+)	6.1점	6.0점	6.0점	6.3점	6.5점	6.4점	
미세먼지 농도(-)	$23\mu\text{g}/\text{m}^3$	$24\mu\text{g}/\text{m}^3$	$19\mu\text{g}/\text{m}^3$	$19\mu\text{g}/\text{m}^3$	$18\mu\text{g}/\text{m}^3$	$19\mu\text{g}/\text{m}^3$	
실업률(-)	3.8%	3.8%	4.0%	3.7%	2.9%	2.7%	2.8%

* 파란색은 전기 대비 개선, 빨간색은 전기 대비 악화, 노란색은 동일을 뜻함.

- **코로나19 시기 악화 이후 이전보다 더 개선된 수준을 보이는 지표**
 - 고용률, 대학졸업자 취업률, 사회단체 참여율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년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하여 최근 가장 개선된 수치를 보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고용률(+)	60.9%	60.1%	60.5%	62.1%	62.6%	62.7%
대학졸업자 취업률(+)	67.1%	65.1%	67.7%	69.6%	70.3%	
사회단체 참여율(+)	51.8%	46.4%	47.7%	50.9%	58.2%	

- **반면, 일부 지표는 코로나19 시기 악화 후 여전히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함**
 - 비만율, 대인신뢰도는 '20년 급격히 악화된 이후 개선되었으나, 최근 다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함
 - 1인당 여행일수 또한 '20년 절반 가까이 감소한 이후 '21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나 '23년 8.95일로 여전히 '19년(10.01일)보다는 낮은 수준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만율(-)	33.8%	38.3%	37.1%	37.2%	37.2%
대인신뢰도(+)	66.2%	50.6%	59.3%	54.6%	52.7%
1인당 여행일수(+)	10.01일	5.81일	6.58일	8.29일	8.95일

2. 영역별 주요 결과

가. 가족·공동체 영역

사회단체 참여율은 '23년 58.2%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가족관계 만족도는 '24년 63.5%로 전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모두 코로나19 이전보다 개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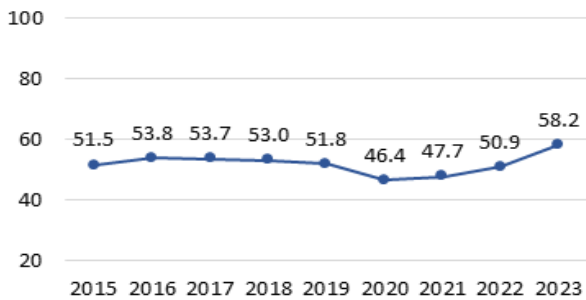
- 사회단체* 참여율은 '20년 46.4%로 감소('19년 대비 -5.4%p)한 이후 '22년 50.9%에서 '23년 58.2%로 증가하여 '19년(51.8%)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임(보고서 26쪽)

* 사회단체: 정당, 노동조합, 종교단체, 동호회, 시민단체, 지역사회모임, 자원봉사·기부단체, 동창회·향우회, 사회적 경제조직

- (성별) 사회단체 참여율은 남자가 60.2%로 여자(56.3%)보다 높고,
- (연령별) 30~50대가 60% 이상으로 높고, 19~29세와 60세 이상에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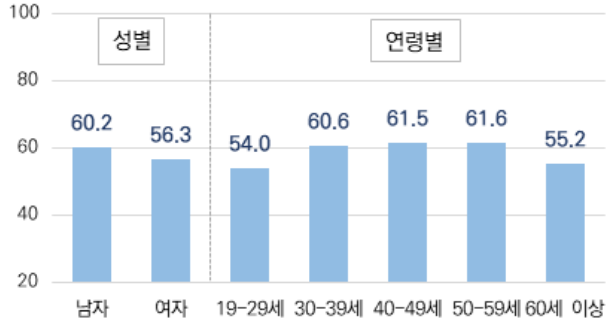
< 사회단체 참여율 (2015~2023년) >

(단위: %)



< 성·연령별 사회단체 참여율 (2023년) >

(단위: %)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19~69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2) 9개 사회단체 중 하나의 단체라도 '소속되어 가끔 활동' 또는 '적극적으로 활동'한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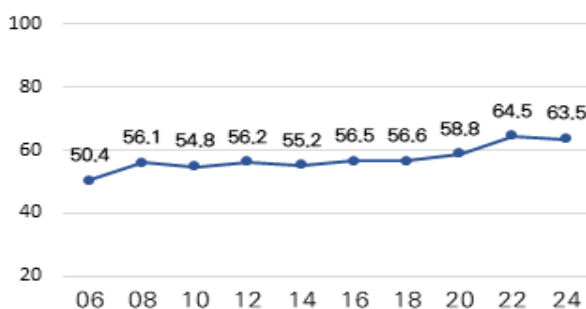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가족관계 만족도는 '22년 64.5%에서 '24년 63.5%로 1.0%p 감소하였으나, '06~'20년까지 60% 미만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개선된 수치임(보고서 24쪽)

- (성별) 가족관계 만족도는 남자가 64.9%로 여자(62.0%)보다 높고,
- (연령별)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져 60세 이상에서 55.0%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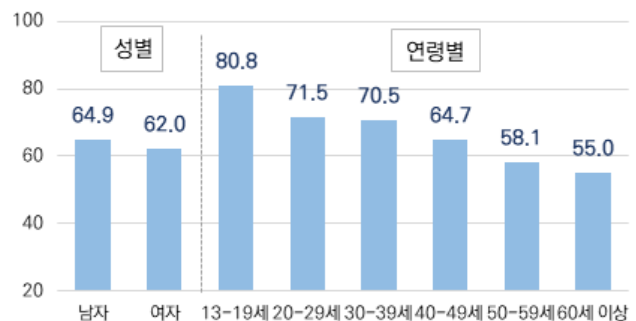
< 가족관계 만족도 (2006~2024년) >

(단위: %)



< 성·연령별 가족관계 만족도(2024년) >

(단위: %)



주: 1)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서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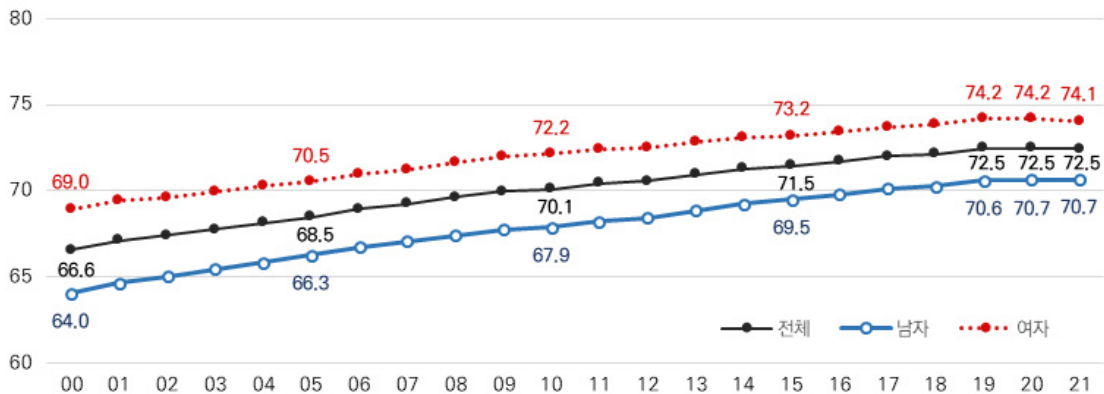
나. 건강 영역

건강수명은 '21년 72.5세로 '19년부터 정체되어 있으며,
 자살률은 '23년 27.3명(인구 10만 명당)으로 전년 대비 2.1명 증가하여 악화

- 건강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지표였으나, '19년 72.5세에서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계속 정체되어 있음(보고서 32쪽)
- 많은 OECD 국가들의 건강수명은 '19년 이후 소폭으로 감소함
 - * 건강수명('19년 → '21년): 일본(73.6세 → 73.4세), 스페인(71.7세 → 71.1세), 이탈리아(71.4세 → 70.6세), 스웨덴(71.4세 → 71.1세), 프랑스(70.7세 → 70.1세), 영국(69.7세 → 68.6세), 미국(66.0세 → 63.9세)

< 건강수명 (2000~2021년) >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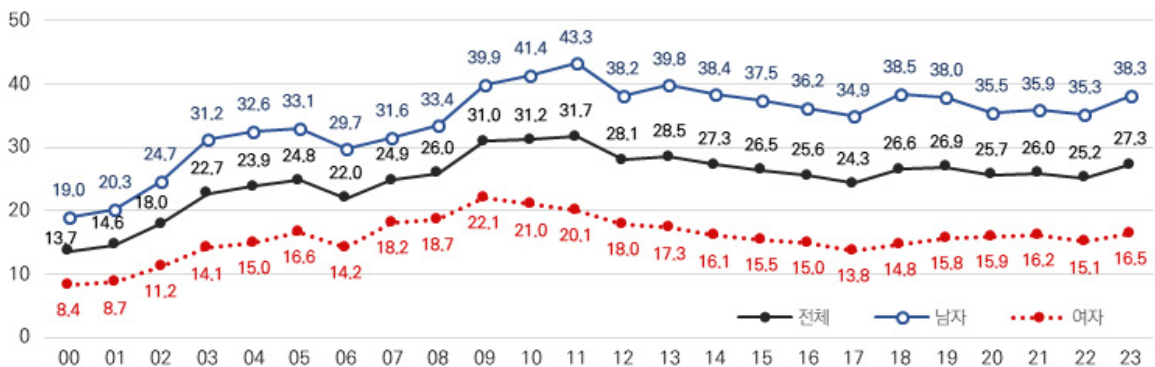


주: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전체 인구의 평균 질병 및 장애기간을 제외한 수명임.
 출처: WHO, World Health Statistics.

- 자살률은 '23년 27.3명(인구 10만 명당)으로 '22년 25.2명에서 2.1명 증가(보고서 36쪽)
- 자살률은 '11년 31.7명에서 최근 26명 이하로 감소하였으나, '23년에 다시 증가함
- (성별) 남자의 자살률은 '22년 35.3명에서 '23년 38.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여자의 자살률은 같은 기간 15.1명에서 16.5명으로 증가함

< 자살률 (2000~2023년) >

(단위: 명/10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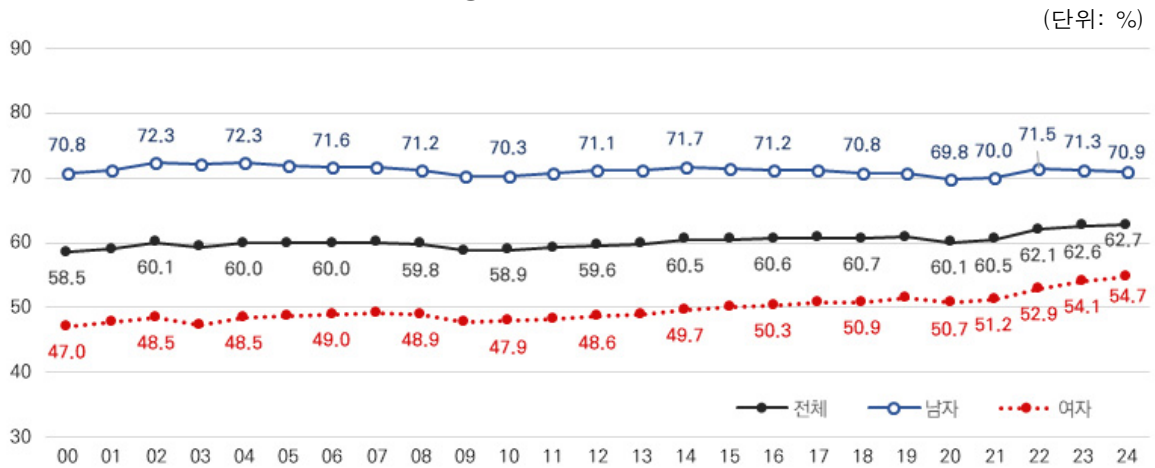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다. 고용·임금 및 교육 영역

고용률은 '20년 60.1% → '24년 62.7%로 증가하였고,
대학졸업자 취업률도 '20년 65.1% → '23년 70.3%로 증가 추세

- '24년 고용률은 62.7%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하여, '2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0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보고서 52쪽)
 - 고용률은 '00년 58.5%에서 60% 전후로 증감을 반복하다 '19년 60.9%에서 '20년 60.1%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성별) '24년 기준 남자는 70.9%로 전년 대비 0.4%p 감소하였으나, 여자는 54.7%로 '20년 50.7% 이후 매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고용률 (2000~2024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대학졸업자 취업률 또한 '23년 70.3%로 전년 대비 0.7%p 증가(보고서 45쪽)
 -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20년에 65.1%로 '19년보다 2.0%p 감소하였으나, '21년 67.7%, '23년 70.3%로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 (성별) '23년 남자는 72.4%, 여자는 68.5%로 남자가 3.9%p 더 높음

< 대학졸업자 취업률 (2011~2023년) >

(단위: %)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67.6	67.4	67.5	66.2	67.1	65.1	67.7	69.6	70.3
남자	70.7	69.9	69.0	67.8	69.0	67.1	69.5	71.2	72.4
여자	64.5	65.1	66.1	64.8	65.2	63.1	66.1	68.2	6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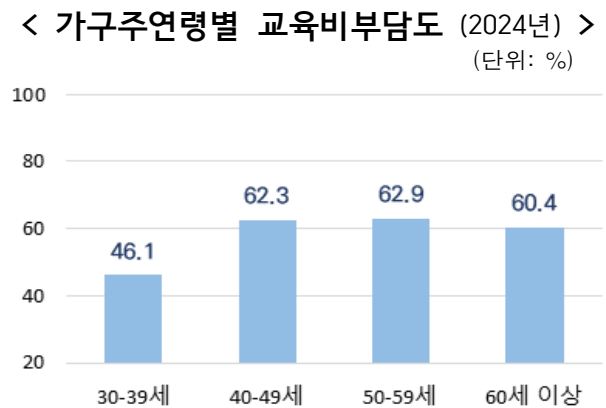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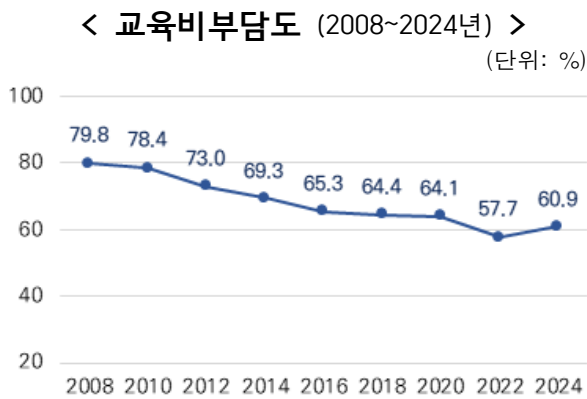
주: 1) 고등교육기관에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이 포함됨.

2) 취업률은 건강보험 및 국세DB를 연계하여 산출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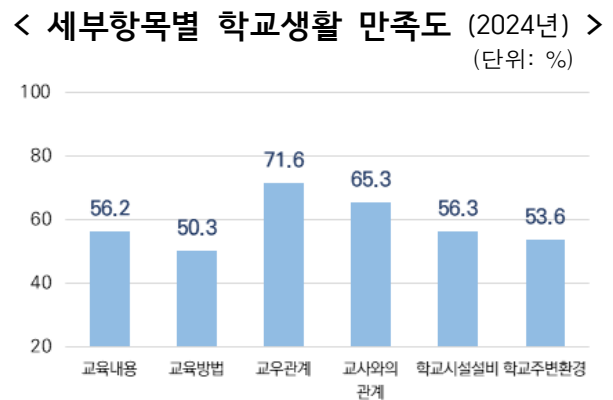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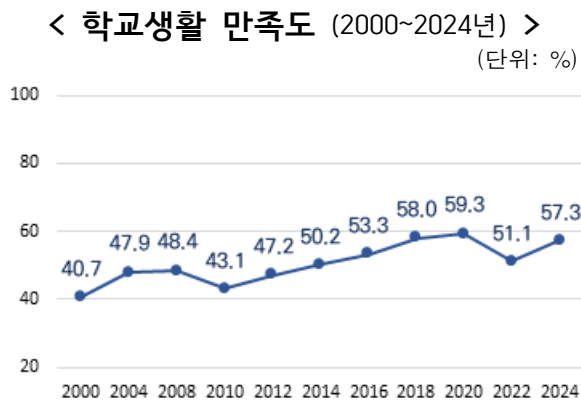
**교육비부담도는 '22년 57.7%에서 '24년 60.9%로 악화된 반면,
학교생활 만족도는 '22년 51.1%에서 '24년 57.3%로 개선 추세**

- 교육비부담도는 '24년 60.9%로 '22년 57.7%에서 3.2%p 증가(보고서 42쪽)
 - 교육비부담도는 '08년 이후 감소 추세로 '24년에 60.9%로 증가하였으나, '08~'20년까지 64%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개선된 수치임
 - (연령별) 50대 가구주의 교육비부담도가 62.9%로 가장 높음



주: 1) 학생 자녀가 있는 30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함.
2) 자녀 교육비의 가정 경제 부담에 대해 '매우 부담스럽다'와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학교생활 만족도는 '22년 51.1%에서 '24년 57.3%로 6.2%p 증가(보고서 44쪽)
 - '10년 이후 증가 추세였던 학교생활 만족도는 코로나19 이후 전면등교 및 방역지침 등으로 '22년 급격히 감소(-8.2%p)하였으나 '24년 다시 증가함
 - (세부항목별) 세부항목별로 만족도를 보면 교우관계가 71.6%로 가장 높고, 교사와의 관계는 65.3%이며, 교육방법이 50.3%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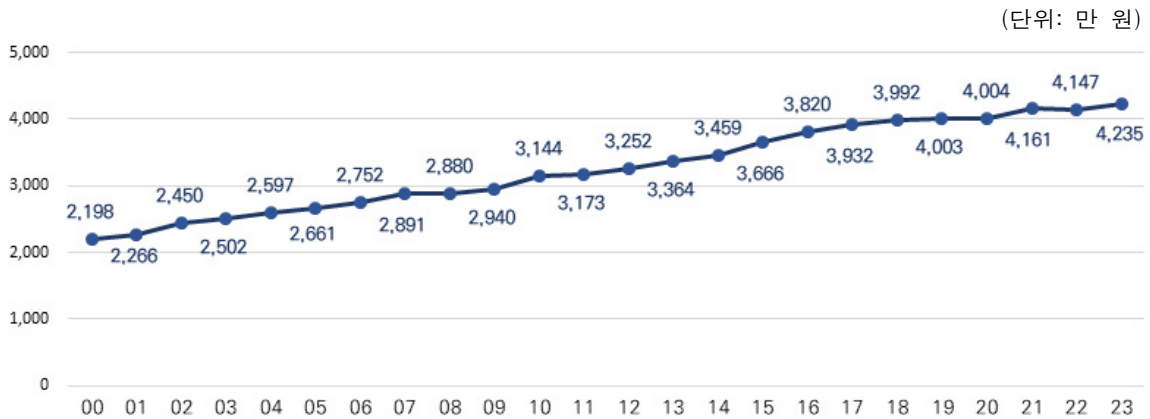
주: 1) 2010년까지 15세 이상, 2012년부터 13세 이상 인구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대상임.
2) 각 세부항목별 학교생활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라. 소득·소비·자산 영역

1인당 국민총소득은 '22년 4,147만 원에서 '23년 4,235만 원으로 증가, 가구순자산은 '24년 전년 대비 3백만 원 가량 증가하였으나 '22년보다 낮음

- 1인당 국민총소득(실질금액)은 '23년 4,235만 원으로 전년보다 21% 증가(보고서 61쪽)
 - 1인당 국민총소득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서 '22년 4,1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하였으나, '23년에 4,235만 원으로 다시 증가함

< 1인당 국민총소득 (2000~2023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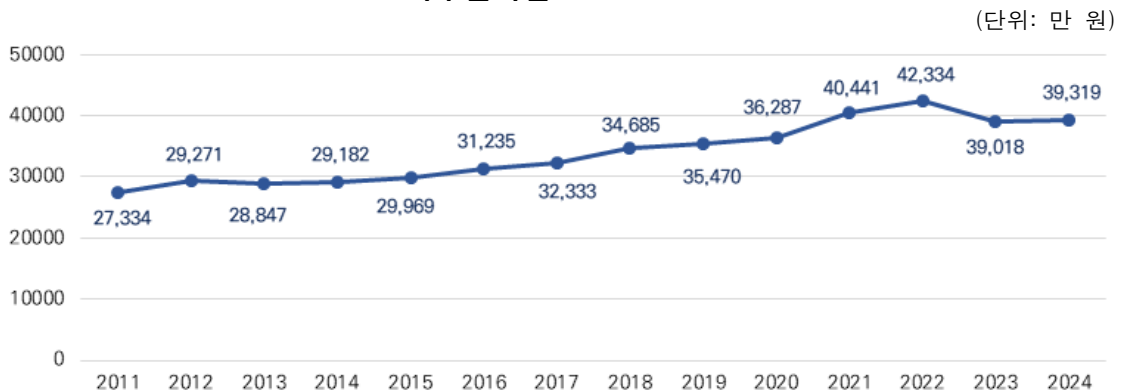


주: 2020년 기준년 개편 국민계정 자료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금액임.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 가구순자산은 '24년 3억 9천만 원(실질금액)으로 '23년보다 소폭 증가(보고서 65쪽)
 - 가구순자산은 '13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였으나, '23년 전년 대비 3,316만 원 감소하여 4억 원 미만으로 낮아짐
 - '24년에는 전년 대비 301만 원 증가에 그쳐 여전히 '21~'22년보다 낮음

< 가구순자산 (2011~2024년) >



주: 실질 가구순자산은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실질화한 금액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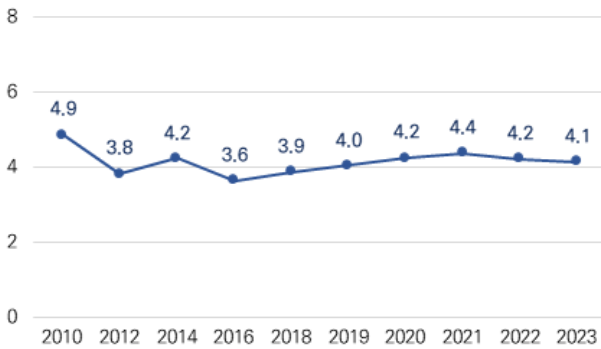
마. 여가 영역

여가시간은 '21년 4.4시간 → '22년 4.2시간 → '23년 4.1시간으로 감소 추세, 1인당 국내여행일수는 '22년 8.29일 → '23년 8.95일로 소폭 증가

- 여가시간은 '23년 4.1시간으로 '21년(4.4시간) 이후 감소 추세임(보고서 72쪽)
 - 반면,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여가시간 충분도는 '23년 63.4%로 '20년 이후 증가 추세로 객관적인 여가시간과는 차이를 보임(보고서 7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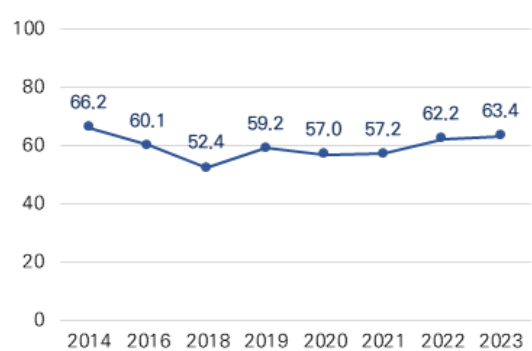
< 여가시간 (2010~2023년) >

(단위: 시간/일)



< 여가시간 충분도 (2014~2023년) >

(단위: %)



주: 1)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여가시간 충분도는 지난 1년동안 평일과 휴일의 여가시간이 충분하였는지에 대해 '매우 부족(1점) ~ 매우 충분(7점)' 응답 중 5~7점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 1인당 여행일수(국내)는 '20년 5.81일에서 '21년 6.58일, '23년 8.95일로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인 10.01일('19년)에는 못 미침(보고서 75쪽)
 - 반면, 여행경험률은 '23년 91.8%로 전년과 동일하나 '19년(85.0%)보다 높음
 - (연령별) 20~40대의 여행일수는 10일 이상이나 70세 이상은 4.55일로 낮은 편이며,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증가 추세이나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낮음

< 연령별 1인당 국내 관광여행일수 (2019~2023년) >

(단위: %, 일)

	여행 경험률	여행 일수	연령별 여행일수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19	85.0	10.01	7.72	11.51	12.10	10.89	10.55	8.15	6.08
2020	75.5	5.81	3.32	7.58	8.21	6.93	5.81	4.20	1.77
2021	89.0	6.58	3.82	8.72	9.07	7.81	6.78	4.91	1.92
2022	91.8	8.29	5.20	10.39	10.96	9.77	8.89	6.61	3.20
2023	91.8	8.95	5.37	10.31	11.35	10.74	9.48	7.82	4.55

주: 1) 15세 이상 인구수(장래추계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임.

2) 관광여행은 행정구역을 벗어나 다녀온 모든 여행 중 관광, 자연감상 등 여가위락, 휴가 목적의 여행을 의미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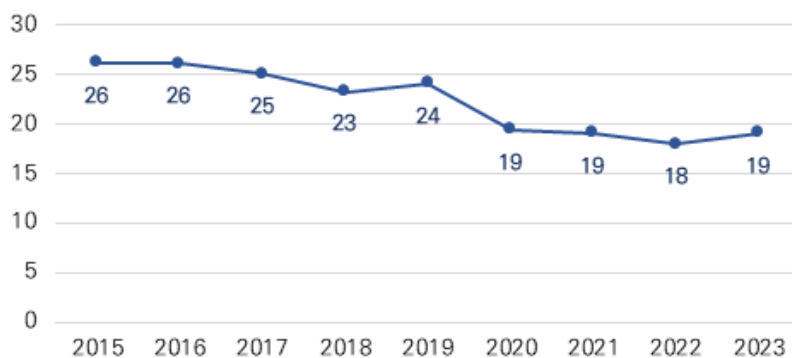
바. 환경 영역

미세먼지 농도(PM_{2.5})는 '23년 19 $\mu\text{g}/\text{m}^3$ 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 '24년 대기질 만족도는 '22년 대비 개선된 반면, 수질 만족도는 악화

- 미세먼지 농도는 '23년 19 $\mu\text{g}/\text{m}^3$ 로 '22년 18 $\mu\text{g}/\text{m}^3$ 에서 1 $\mu\text{g}/\text{m}^3$ 증가했지만 여전히 '19년(24 $\mu\text{g}/\text{m}^3$)보다는 낮은 수준임(보고서 88쪽)
- 미세먼지 농도는 '15년 26 $\mu\text{g}/\text{m}^3$ 에서 '20년 19 $\mu\text{g}/\text{m}^3$ 로 개선된 이후 비슷한 수준임

< 미세먼지 농도 (2015~2023년) >

(단위: $\mu\text{g}/\text{m}^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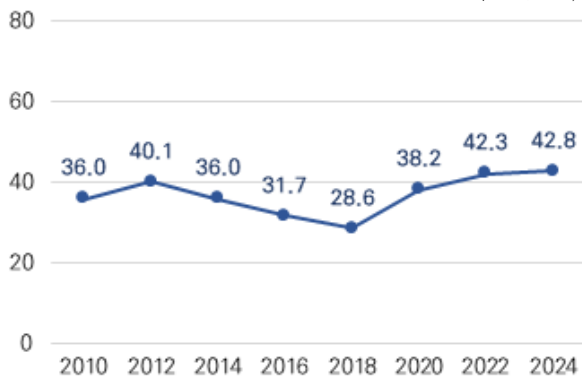
주: 17개 시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의 인구가중 평균값임.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 대기질 만족도는 '24년 42.8%로 '22년보다 0.5%p 증가하였으며, '18년 28.6%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보고서 90쪽)
- 수질만족도 또한 '18년 29.3%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였으나 '24년에는 '22년보다 0.8%p 감소한 40.3%로 대기질 만족도보다 낮은 편임(보고서 9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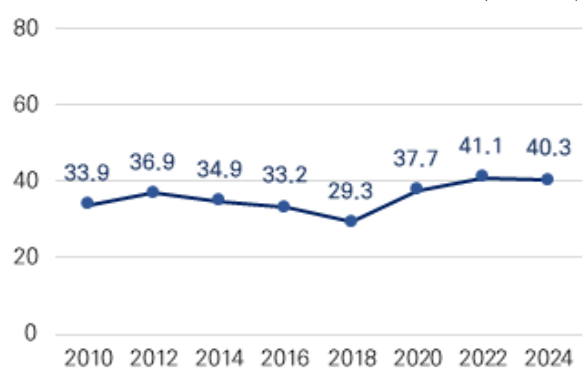
< 대기질 만족도 (2010~2024년) >

(단위: %)



< 수질 만족도 (2010~2024년) >

(단위: %)



주: 1) 2010년까지 15세 이상, 2012년부터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각 세부항목별 만족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사. 안전 영역

**범죄피해율은 '20년 3,806건에서 '22년 6,439건(인구 10만 명당)으로 크게 증가
야간보행 안전도와 안전에 대한 인식은 '22년 대비 '24년에 악화**

- 범죄피해율은 '22년 6,439건(인구 10만 명당)으로 '14~'20년까지 4천 건 미만이었었던 것과 비교 시 큰 폭의 증가이며, 이는 재산범죄 증가에 기인함(보고서 100쪽)
- (유형별) 재산범죄는 '20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22년 5,397건(인구 10만 명당)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폭력범죄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22년 1,041건(인구 10만 명당)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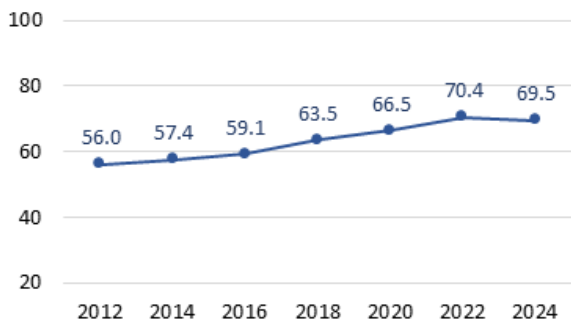
< 범죄피해율 (2012~2022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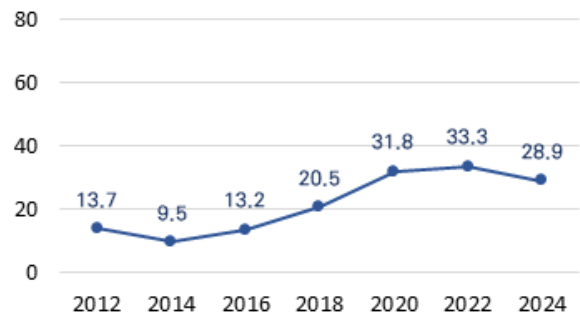
주: 1) 지난 1년동안 한 번이라도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발생건수를 추정한 값임.
2) '20년, '22년 조사시 범죄피해 항목이 일부 변화함에 따라 시계열 분석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 야간보행 안전도는 '24년 69.5%로 '22년 70.4%에서 0.9%p 감소하였으나, '20년 (66.5%) 보다 높은 수준임(보고서 101쪽)
-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24년 28.9%로 '22년보다 4.4%p 감소(보고서 106쪽)

< 야간보행 안전도 (2012~2024년) >
(단위: %)



<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2012~2024년) >
(단위: %)



주: 1)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야간보행 안전도는 밤에 혼자 걸을 때 '매우 안전'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3)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매우 안전'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아. 시민참여 영역

'23년 대인신뢰도는 52.7%, 기관신뢰도는 51.1%로 '21년 상승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전년 대비 각각 1.9%p, 1.7%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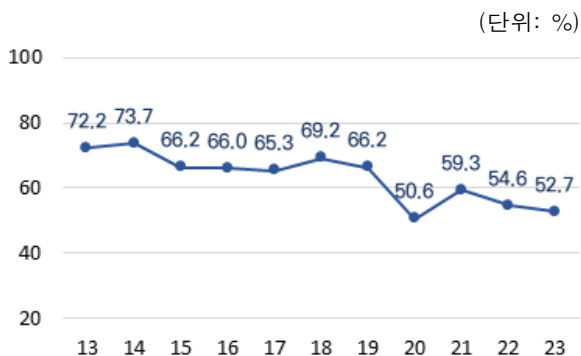
□ 대인신뢰도는 '23년 52.7%로 전년 대비 1.9%p 하락함(보고서 118쪽)

- 대인신뢰도는 '20년 50.6%로 전년 대비 15.6%p 급격히 하락한 이후 '21년 59.3%로 상승하였지만 '22년 54.6%, '23년 52.7%로 하락 추세를 보임
-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낮아진 대인신뢰도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 (연령별) 40세 이상에서 대인신뢰도는 54~55%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반면, 19~29세는 46.7%, 30~39세는 48.2%로 낮음
- * 연령별 대인신뢰도: 19~29세 46.7% 30~39세 48.2% 40~49세 54.8% 50~59세 55.5% 60세 이상 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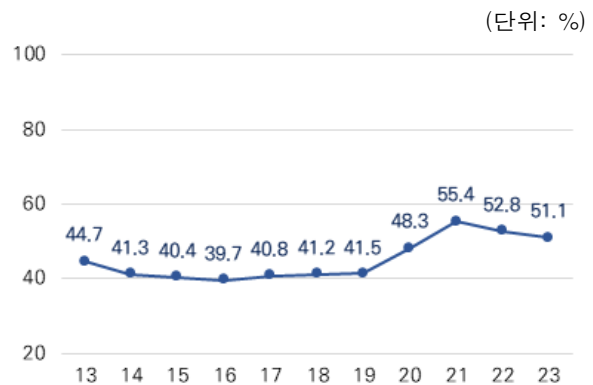
□ 기관신뢰도는 '23년 51.1%로 전년 대비 1.7%p 하락함(보고서 113쪽)

- 기관신뢰도는 '14~'19년까지 39~41% 수준에서, '20년 48.3%, '21년 55.4%로 급격한 상승을 보였으나 '22년 52.8%, '23년 51.1%로 하락 추세임
- '22년과 비교 시 TV/방송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서 하락폭이 큼
- * 기관신뢰도 감소('22년 대비 '23년): TV/방송사(-6.9%p), 노동조합(-5.4%p), 시민단체(-5.2%p)
- * 기관신뢰도('23년) : 의료계(72.1%), 교육계(66.9%), 금융기관(63.8%), 지방자치단체(58.6%), 대기업(54.5%), 군대(54.5%), 중앙정부부처(53.8%), 경찰(51.4%), TV/방송사(49.6%), 종교계(48.5%), 법원(48.5%), 검찰(44.5%), 신문사(44.4%), 시민단체(43.6%), 노동조합(37.7%), 국회(24.7%)

< 대인신뢰도 (2013~2023년) >



< 기관신뢰도 (2013~2023년) >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19~69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2) 대인신뢰도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해 '매우 믿을 수 있다' 또는 '약간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3) 기관신뢰도는 16개 기관에 대해 '매우 믿을 수 있다' 또는 '약간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 주관적 웰빙 영역

'23년 삶의 만족도는 6.4점으로 전년(6.5점)보다 소폭 감소하였고, 긍정정서는 6.7점으로 전년과 동일, 부정정서는 3.1점으로 전년(3.3점) 대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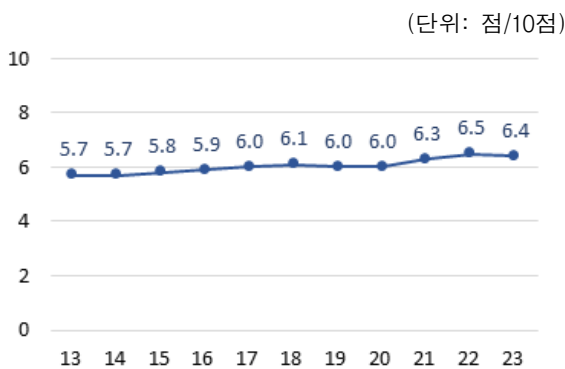
- 삶의 만족도는 '23년 6.4점으로 '22년 6.5점에서 소폭 감소하였으나, '13년 5.7점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보고서 121쪽)
 - (가구소득별) 삶의 만족도는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아 1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는 5.7점으로 평균보다 0.7점 낮음
- 200만 원 미만인 집단에서 '22년 대비 감소폭(-0.3%p)이 큼

	전체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삶의 만족도 ('22년)	6.5점	6.0점	6.4 점	6.3 점	6.5 점	6.5 점	6.6 점	6.6 점
('23년)	6.4점	5.7점	6.1 점	6.2 점	6.4 점	6.5 점	6.6 점	6.6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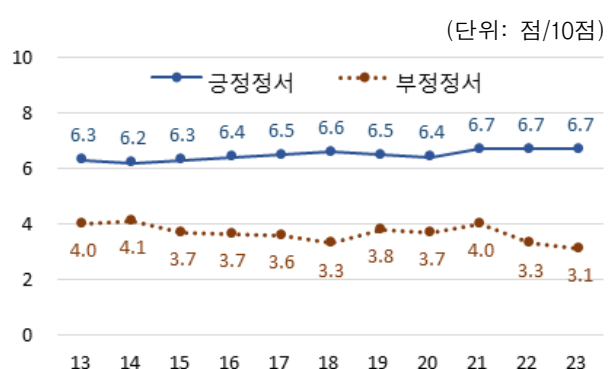
- 우울과 걱정정도를 보여주는 부정정서는 '20년 3.7점에서 '21년 4.0점으로 증가하였으나 '22년 3.3점, '23년 3.1점으로 감소 추세임(보고서 124쪽)
 - (긍정정서) 행복 정도를 보여주는 긍정정서는 '23년 6.7점으로, '20년 6.4점에서 '21년 6.7점으로 증가한 이후 동일한 수준임(보고서 123쪽)
 - (가구소득별)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긍정정서가 낮고, 부정정서는 높음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긍정정서('23년)	6.1점	6.3 점	6.5 점	6.7 점	6.7 점	6.9 점	6.8 점
부정정서('23년)	3.5점	3.4 점	3.3 점	3.1 점	3.2 점	2.9 점	3.0 점

< 삶의 만족도 (2013~2023년) >



< 긍정 및 부정정서 (2013~2023년) >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19~69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2) 삶의 만족도는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 응답의 평균값임.

3) 긍정정서(행복)와 부정정서(우울감, 걱정)는 어제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 응답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붙임1. 최근 추세별 61개 지표^(24년 업데이트된 지표) 현황

	개선지표(31개)	악화지표(23개)	동일지표(7개)
가족·공동체	사회단체참여율	독거노인비율 가족관계만족도 지역사회소속감	
건강	기대수명 스트레스 인지율 주관적 건강상태 신체활동 실천율	자살률	건강수명 비만율
교육	학교생활 만족도 고등교육 이수율 대학졸업자 취업률	교육비 부담도 학교교육의 효과	유아교육 취원율
고용·임금	고용률 저임금근로자 비율	실업률 월평균 임금 근로시간	
소득·소비·자산	1인당 국민총소득 가구중위소득 가구순자산 가계부채비율		상대적 빈곤율
여가	문화여가 지출률 여가시간 충분도 1인당 여행일수	여가시간	
주거	주택임대료 비율 1인당 주거면적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자가점유가구 비율	
환경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대기질 만족도 소음 만족도	미세먼지 농도 수질 만족도 토양환경 만족도 녹지환경 만족도 기후변화 불안도	
안전	가해에 의한 사망률 산재사망률 화재 사망자수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범죄피해율 야간보행 안전도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시민참여	정치적 역량감	기관신뢰도 시민의식 대인신뢰도	부패인식지수
주관적 웰빙	부정정서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